

大容量 리액터(reactor) 의 開發

개발품명 : SHUNT REACTOR (3ph. 30MVAR)

개발기간 : 1980. 3. 5~1980. 6. 21

제작사: 현대중전기 주식회사

現代重電機(株) 常務・金健永
變壓器設計部次長・양성식

국내에서 電氣機器로서의 리액터産業은 지금 까지 콘덴서 直列用, 電流平滑用, 電動機起動用 等 소규모로 제작되고 있었고 그 容量도 대 부분 1000 [KVA] 미만이었다.

当社에서도 变压器, 配電盤, 遮断器, 回転機
(電動機, 発電機) 工場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量의 리액터를 제작하였고, 어떤 때는 동시에
多種의 리액터를 70대 가량 제작한 때도 있었다.

그러던 중 大容量 級인 30 [MVAR] 의 리액터를 제작할 기회를 얻었다. 그때 겪었던 바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1. 대용량리액터의 용도

계통이 복잡하게 되고 송전 및 변전 용량이 커짐에 따라 리액터의 용도도 다양하여지고 용량도 커지고 있다.

大容量리액터는 보통 두가지의 경우에 사용된다.

첫째, 遮斷器의 遮斷容量이 충분히 크지 못할 때 遮斷電流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되며.

둘째, 送電線路 等에서 심야 즉 輕負荷時에
系統의 不安定을 보상시키기 위하여 同期調相
의 설치비를 감안하여 설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둘째 경우를 감안하여 345(KV) 麥電所에 당사가 개발한 3상 30(MVAR) 리액터 3 대를 설치, 계단식으로 투입하여 靜電容量에 의한 系統의 不安을 제거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2. 리액터의 設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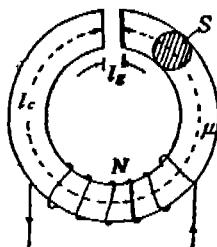
리액터는 구조상으로 변압기와 유사하나 사용용도나 특성 요구치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당사가 개발한 리액터는 철심 내에 공극(AIR GAP)을 둘으로써 아래와 같은 기본에 따라 계산하여 여기에 경험치를 부가한 후 기본 설계가 이루어진다.

I) 인덕턴스 기본식

$$F = R \cdot \phi = NI$$

$$N\phi = LI$$

$$\therefore N = N\phi / I = N^2 / R \quad \dots \dots \quad (1) \text{식}$$



그림과 같은 자기회로에서

$$R = l_o / \mu S + l_g / \mu_0 S$$

$$= 1 / \mu_0 S \left(\frac{l_c}{\mu S} + l_g \right) \dots \dots \dots \quad (2) \text{식}$$

(1)식과 (2)식에서

$$L = \frac{\mu_0 S N^2}{\frac{l_c}{\mu S} + l_g}$$

$$l_g > \frac{l_c}{\mu S} \text{ 이므로}$$

$$L = \mu_0 S N^2 / l_g \text{ 가 된다.}$$

$$\text{즉 } L = 4 \pi \times 10^{-7} S N^2 / l_g$$

2) 누설자속의 문제점

大容量이 됨으로써 누설자속도 많아져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外函에 통과되는 磁束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非鐵金屬에 의한 磁氣차폐를 시켰고, 도체 내부에서의 문제를 고려, 도체두께를 줄였다.

또 鐵心을 고정시키는 그램프류도 非鐵로 써 차폐시켰으나 와류손이나 표유부하손에 의한 손실 증가가 예상외로 많아져서 전손실의 30(%)가 이 와류손 및 표유부하손으로 나타났다.

3) 소음의 감소

리액터는 공극으로 인하여 鐵心간에는 필연적으로 소음이 發生하는데 이 소음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몸체와 외함 간의 직접 접촉을 피하여 흡음장치를 하였고 상하 유크는 접시형 스프링으로 항상 놀려지도록 하였다.

또 장시간 사용에 따라 보울트 이완을 고려, 불만처리시 쉽게 보울트를 조일 수 있도록 하

는 장치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内部소음은 출였으나 외부에 취부되는 부속품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상당히 높았다.

3. 리액터의 제작

리액터의 제작에 핵심을 이루는 것은 鐵心이다. 当社에서 제작된 리액터 수는 9대인데 해당 약 10만장 이상의 규모 강판을 짤라야 했으므로 총 백만장의 鐵心을 절단한데다가 납기가 짧았으므로 애로가 많았다.

또 각 철심 구분 (Core section)이 둘덩이처럼 단단하여야만 소음이 적어지므로, 예폭시 함침, 成型, 真空탈기, 加压, 건조하는 모을당 공정은 협난하였다.

4. 리액터의 시험

리액터가 보통 변압기와 다른 점은 전압의 인가와 함께 부하가 직접 결리며 역률이 낮고 리액턴스가 작은 점이다.

이 때문에 試驗時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1) 電源設備

임피던스 측정이나 溫度上昇試驗, 過電壓試驗을 하기 위해서는 定格容量 以上의 전원 공급 설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상용량을 보상하기 위하여 콘덴서를 다량으로 直列 및 並列로 設置할 경우에는 直列 및 並列共振 현상으로 異狀電壓이 발생하여 전원의 투입 및 차단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콘덴서 보상시 전원전압이 거의 「0」에 가까운 시점에서 전원 투입을 하지 않고는 이러한 異狀電壓의 上昇을 억제하기 힘들다.

당사에서는 이 시험을 위하여 ULTC부착 154(KV)급 40(MVA)의 變壓器를 제작하였는데,

이 보조變壓器의 제작지연으로 애로가 많았다.

2) 저역률(低力率)

당사가 제작한 리액터의 力率은 약 0.4 (%)로서 이 力率에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電力計를 찾기가 힘들다.

보통 電力計로써 측정할 경우 그 결과치가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당사가 보유한, 세계에서도 둘 밖에 없는 最新의 측정設備가 아니고서는 이 측정은 불가능하였다.

3) 低리액턴스

이것으로 문제가 일어난 것은 고주파 유도시험(高周波誘導試驗)에서 생겼다.

当社의 試驗주파수는 240(HZ)로 정격 주파수 60(HZ)의 4배가 되고, 인가전압은 2배가 되므로 인가전원용량도 역시 30(MVAR)의

용량이 필요했다. 시험설비로 이렇게 큰 설비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

또 콘텐서에 의한 보상도 直列 및 並列共振의 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각국의 규격을 찾아본 결과 충격시험으로 대체해도 좋다는 사항을 발견하고 내심 반가웠다.

이와 같이 大容量리액터를 처음으로 만들면서 유달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험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개발시험 및 검수시험을 하면서 애쓰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신제품 개발과 국내 전기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현대중전기는 계속 매진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